

운곡서원 유연정에서 잉어, 쏘가리, 학 그림 발견

후손들의 등용과 장수를 비는 그림, 경주시에 학술조사 요청 예정



유연정 천정에 먹으로 그려진 잉어 3마리



유연정의 학



처마를 받치는 익공 사이에 조각된 연꽃 봉오리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悠然亭, 1811년 순종純宗 11년 창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 천정에서 등용(登龍, 문과급제文科及第)을 상징하는 잉어, 쏘가리와 귀한 장수를 비는 학(鶴)과 연(蓮), 그리고 연꽃 봉오리가 들어간 익공(翼工, 처마와 기둥 사이의 장식물)이 후손들에 의해 발견돼 고고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朝鮮) 후기의 빼어난 고건축 미(美)와 잉어, 쏘가리, 학(鶴), 그리고 애련설(愛蓮說)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유연정(悠然亭)이 고고학계(考古學界)에 보고되면 국보문화재로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잉어와 쏘가리, 학, 연꽃의 사계를 건물에 장식한 건물로는 영남(嶺南) 일대에선 유일하다.

지난 6월 21일 권택관(權宅官, 미술학 전공 37세) 후손에 의해 확인된 잉어와 학 그림은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의 우물정(井)자 형 천정 추녀를 고정시키는 달동자(강다리, 고건축용어) 비녀꽃이에 3마리가 먹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같은 날 권진택(權鎭宅) 서원유사(書院有司)가 확인한 정자 출입문(出入門)쪽 우물정(井)자 천정 달동자 비녀꽃이 전면엔 쏘가리가, 뒷면엔 비상(飛翔)하는 학(鶴)이 그려졌다.

2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잉어와 쏘가리, 학(鶴)은 사실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했다. 쏘가리는 잉어와 달리 등에 뾰족한 침을 달고

있다. 우리 민화에 나오는 쏘가리는 대궐(大闕)의 임금을 상징, 한 마리만 그린다고 했다. 등과(登科) 후 대궐에서 벼슬살이를 하라는 뜻을 담았다. 민화 학자에 따르면 쏘가리(鰲, 쏘가리궐) 궐(鰲)자와 대궐의 궐(闕)자의 음이 같아서 같은 등용을 뜻하지만 잉어보다 한수위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유연정(悠然亭) 천정에 조각된 연(蓮)은 꽃이 피고 지고 연씨를 품는 애련설(愛蓮說)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특히 유연정(悠然亭)

을 지탱하는 3칸 8개 도리 기둥과 지붕 처마선을 떠받치는 16개 익공마다 연꽃 봉오리 모양 조각을 넣어 정자의 미(美)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200년 전 유연정(悠然亭)을 설계했던 선조상들은 당대의 최고 도목수를 모신 미적 감각을 지녔다. 정자 앞을 흐르는 용추(龍湫) 직벽에 정자를 짓고 도연명(陶淵明, 365~427 송나라 초기시대의 시인)의 한시(漢詩) “음주(飲酒)에서 유연(悠然)을 따라 정자 이름을

지었다. 도리 기둥과 천정, 추녀를 잇는 지붕선에 자손들의 등용문(登龍門, 대과급제文科及第)을 상징하는 잉어와 쏘가리, 비상(飛翔)하는 학(鶴), 그리고 꽃 중의 꽃(군자君子)을 상징하는 연꽃의 사계를 천정 네 곳에 비치해서 고귀한 후손이 끊이지 않기를 염원했다.

또 서까래와 대들보가 겹치는 장면을 가리기 위해 우물정(井)자 천정을 배치한 방식도 영남(嶺南) 고건축에선 찾을 수 없는 특별(特別)한 건축(建築) 형태다. 정자 큰방 안쪽 벽지로 가려진 곳에도 이같은 그림이나 조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정자 전체의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창건하고 보존한 선대(先代)들이 경주시(慶州市) 강동면 운곡(雲谷) 용추(龍湫) 직벽에 건립한 유연정(悠然亭)은 크지도 적지도 않다. 도연명(陶淵明)의 자연사상을 따르고 주돈이(周敦頤, 북송北宋의 유학자儒學者)의 학문적(學問的) 이론(理論)인 광풍제월정(光風霽月亭,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의 고요함) 정신을 현판(懸板)에 새겨 비록 궁벽한 시골에 태어났어도 용추(龍湫)의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나라와 가문을 빛내는 후손이 먼 미래에도 이어져 나오기를 염원했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이같은 내용을 경주시(慶州市)에 알려 학술(學術)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오선 좌윤공파회장

권영창 회장, 권태운 부회장과 국가문화유산 성지 추진 논의

권영창 회장은 7월 19일 대중회를 방문한 권태운 부회장과 권종숙 작가와 안동 서후면 일대 국가문화유산 성지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안동시 서후면 일대는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보 제15호인 봉정사 극락전, 보물 제55호인 봉정사 대웅전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지정 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산 및 안동시 지정 유산 등 국가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국가문화유산 성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권영창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선 사무총장, 권영창 회장, 권태운 부회장, 권종숙 작가, 권기모 총무국장(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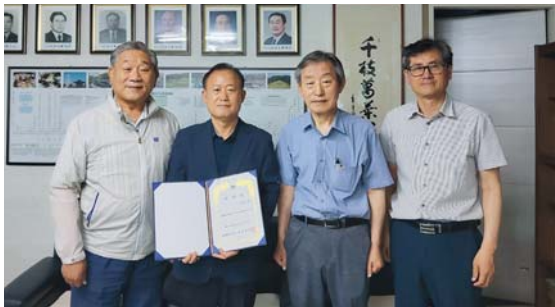
권영창 회장, 권기모 신임 총무국장 임명

권영창 회장은 지난 7월 19일 권기모(權奇模, 북야공파 36세) 전 한국수자

원공사 부장을 총무국장에 임명했다. 권영창 회장은 “총무국장에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 대중회는 2029년

이면 권기 1100년이 된다. 이를 위해 1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능동재사가 위치한 서후면 일대를 국가문화유산 성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총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총무국장은 비록 적은 봉급이지만 중요한 자리이다. 안동권문을 위한다는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대중회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창 회장, 권기모 신임 총무국장, 권오선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왼쪽부터)

2024年 8月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회비> 부 회장 권오선(대구)	1,000,000
	합계 : 1,0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제432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

임진왜란 최초 육전(陸戰) 승전지

제432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와 추밀공파종회에서는 대형 버스 1대를 임차하여 단체로 참석할 예정이오니 족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 ❖ 장 소 : 이치대첩지 충장사
- ❖ 주 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
- ❖ 문 의 :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금산문화원 041-754-2724
- ❖ 집합장소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검은색 光버스에 탑승, 죽전간이정류장 경유
출발시간 8.26. 07:00(시간엄수)
- ❖ 점심식사 제공
- ❖ 후 원 : 안동권씨 추밀공파 참의공종중(대전)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영창·안동권씨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오돈

